

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(9보)

- 12월 29일(일) 09:0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(방콕-무안)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1일 09: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희생자 안치장소)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 설치·운영 중(이송된 4구* 외 175구 안치), 희생자 합동분향소 17개 시·도에 88개소 설치
 - * 신원 확인 희생자 중 검안 완료된 4명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 안치(광주 3명, 서울 1명)
 - (사고현장 수습) ‘25.1.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되었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‘25.1.7일 오전 5시까지 폐쇄 연장(기간 변경 가능)
 - (사고조사)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(11명) 및 美 합동조사 인원(8명*) 현장 출동하여 금일부터 사고조사 개시
 - * 美 연방항공청 1명, 교통안전위원회(NTSB) 3명, 항공기 제작사(보잉) 4명
 - 블랙박스 등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 완료하여 상태 확인 중, 다만,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 중
 - (전수점검)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(B737-800, 101대)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·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이력, 운항·정비기록 실태 등 전수조사 실시 중(‘24.12.30~’25.1.3)
 - (통합지원센터) 희생자 유가족 1:1 매칭(지자체 전담관 602명), 숙식(655 객실·식당 확보)·비상물품(담요·텐트 등) 지원, 심리 지원(심리전문가 62명), 현장진료소 운영(의사 2명) 등 지속 지원

담당 부서	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800)
			서기관	강혜정 (044-201-4801)